

1. 인사 / 11장 인트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출석체크 꼭 잊지 마세요. 총 6회중 4번이상 출석하셔야 수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상세히 나누면 130여가지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 부르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편 학자들은 아무리 정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성경에 슬쩍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11장에는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대 페르시아 멸망과 헬라제국의 분열

다니엘 11: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우며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려 주셨습니다.

다니엘 11: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메대 바사 제국에 네 왕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왕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어로 왕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앞의 세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 속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무려 백만 대군을 소집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백만 군사들을 이끌고 참여한 전투에서 헬라 제국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 뒤로 메대 바사 제국의 기세가 기울고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다니엘 11: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능력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재위하던 시절, 헬라 제국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스무 살에 왕위에 오를 당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실제로 그는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였고, 급기야 인도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그는 진격을 멈추죠. 만약 알렉산더가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면 인도를 넘어 중국을 지나 한반도까지 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다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 측근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왕권을 넘길 생각입니까? 당시 알렉산더에게는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좌를 넘겨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는 그는 ‘제일 힘이 강한 자에게 왕권을 물려줘라’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둡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을 분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각종 음모와 모략과 암살과 독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내를 비롯한 알렉산더 왕가가 비운의 죽음을 맞으며 전멸하게 됩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게 되죠.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이 해체 된 것입니다.

3. 남방과 북방의 전쟁

옆면-3 촬영 시작

말씀을 보면 남방과 북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11:5-6

5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애굽지역을 뜻하고, 북방은 셀레우코스 왕조로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두 왕조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세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왕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부딪친 것이죠. 그러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공주를 셀레우코스 왕가로 시집 보냅니다. 이 정략결혼으로 인해 얼마간 평화가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와 그 자녀들이 멸족되고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1:7-9

7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7절에 보면 '그의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궁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지도보시면 '이소스'라는 지명 보이시나요? '이소스'지역 바로 밑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함락이 쉽지 않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막강한 전력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은 4만달란트와 보물과 2,500개에 달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본국,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들은 원래 애굽의 것이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약탈되었던 은과 보물과 우상들을 다시 찾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는 서로 평화 조약을 세워 평화롭게 지냅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셀레우코스 2세는 지난날의 수모를 기억하고 되갚고자 평화 조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본국,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패하여 본국으로 귀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계속 되었습니다.

옆면-3 촬영 끝

다니엘 11: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그 아들들이 싸우게 됩니다. 북방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 대해 전쟁을 벌입니다. 셀레우코스 3세는 소아시아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3세는 36년동안 셀레우코스 왕조를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하여 많은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방 왕국의 성을 칩니다. 이에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니엘 11: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이에 맞서 보병 7만명과 기병 6천명과 코끼리 73마리로 대군을 구성하여 북방을 침공합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보병 6만 2천명과 기병 6천명과 코끼리 102마리로 대군을 구성해 방어합니다. 전쟁은 팔레스틴에 위치한 라피아라는 지역에서 2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1절에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 11: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전쟁에 승리하여 매우 교만해 졌습니다. 교만은 심해져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 안을 들어가려 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니엘서 6장 강의안

그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유대인들을 노예화 하라는 칙령을 공포했고, 유대교인들을 코끼리로 짓밟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사로잡은 1만 6천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량으로 학살하지만, 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 인도까지 점령하고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그의 부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5세의 나이는 겨우 4-7세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방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조? 이 때다 싶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남방을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 11: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칩니다. 14절에서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폭력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 애굽의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들은 안티오코스 3세의 침략군에 동참하여 남방 왕조를 침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는 유대인들의 반기에 대한 보복으로 응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11: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는 군대를 이끌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 스코파스의 군을 격파하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편 스코파스 장군은 시돈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당시 시돈 성읍은 매우 견고한 철옹성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돈 성을 함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성벽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을 퍼와 토성을 쌓고 공격합니다. 이에 결국 시돈성은 함락됩니다.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요새 기지인 가자까지 점령함으로 팔레스틴 땅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다니엘 11: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교전략으로 그의 딸

다니엘서 6강 강의안

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을 어린 왕에게 줌으로 딸을 통해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조정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하자마자 어린 남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굳게 지지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꺾고 맙니다.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사이에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낳았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섭정하였습니다. 애굽 왕실 역사에서 최초 여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최후의 여왕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클레오파트라는 동명이인으로 클레오파트라 1세 쉬라입니다.

다니엘 11:18-19

18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지중해 쪽으로 진출하여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장군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인데요. 안티오쿠스 3세의 7만의 군사와 스키피오 장군의 3만의 군사가 싸워 스키피오 장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북방 안티오쿠스 3세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로마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져 안티오쿠스 3세는 폭동 중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4. 예루살렘 침략

다니엘 11:20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3세는 살해되고 그의 왕위를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이어 받습니다. 그는 12년간 셀레우코스 왕국을 통치하면서 매년 로마에 일천 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통치기간 내내 조세의 부담을 안았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조세관을 의미하는 압제자를 보내어 아름다운 곳,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냅니다. 조세관은 성전의 금고를 탈취하기 위해 호위병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황금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를 태운 말이 조세관을 받아쳤고 호위병들은 두 천사에게 채찍에 맞게 됩니다. 조세관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본국으로 돌아가 절대 예루살렘을 건들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탈취해 오라는 셀레우코스 4세와 부딪히게 되고 고심 끝에 셀레우코스 4세 왕을 독살해 버립니다.

옆면-4 촬영 시작

다니엘 11: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왕 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돼지머리를 둠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다니엘 11:22-23

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방 왕은 군사가 만았지만 북방 왕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에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편 그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됩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활한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조약을 맺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동생인 7세와 동맹을 맺고 안티오쿠스 4세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빠르게 전해집니다. 먼저 침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남방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소식을 듣고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막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치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려 분풀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놓아두고 돼지를 들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옆면-4 촬영 끝

5. 하나님의 타이밍

다니엘 11: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 주며 계락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북방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 왕국을 침략하여 많은 땅을 빼앗을 것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기름진 곳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아무리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나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던 시리아 지역은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로마와 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이처럼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한 나라가 쇠하고 또 다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실현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다 동지를 튼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것이 활활타는 광경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만 급하죠. 하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확한 때를 잡아놓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세요.

다니엘 11: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사탄의 세력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6. 보좌 앞의 책들과 다른 책

다니엘서의 마지막장인 12장에서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니엘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의 신약판이라 불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책입니다. 단수로 쓰인 책은 말씀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책에 기록될

다니엘서 6장 강의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인생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단수형으로 쓰인 책이 생명책을 말한다면 복수형으로 쓰인 책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 7:9-10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책들은 곧 심판을 베푸는 책을 의미합니다. 생명책과 반대되는 심판의 책에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은 수많은 삶이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뿌리박힌 삶이기에 심판의 책이 아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7. 히데겔 강가의 환상 풀이

다니엘 12:2-3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은 이처럼 심판 날에 벌어질 풍경을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있는 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기초를 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입니다. 의와 생명이 되는 오직 한 길 예수님에게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니엘 12:6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제 다니엘은 10장에 나왔던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환난에 관한 환상을 보던 중에 일의 끝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사건 자체에 대해 묻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시점을 물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와 기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소용이야? 흔히 이단들이 자주 주장하죠.

곧 종말의 날이 오는데 열심히 일은 해서 뭐해! 구지 잘 살았을 필요 없자나

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예 가족과 소식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기한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해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갈지어다를 한글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가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할 삶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니엘 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앞서 살펴본대로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 되었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둠의 권세가 자신의 힘을 일시적으로 과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때 사탄은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8. 환난의 때에

다니엘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이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게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참과 거짓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 안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과 아내를 데려올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폭풍우를 통과하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

다니엘서 6강 강의안

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어 봐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지 참 신랑이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기억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젠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코로나 19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의문이 들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서를 들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힘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